



세계포장업계가 주목한 Packaging 2006

1천만불 상담 실적 및 50만불 계약 성과 거둬

김 영 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 부회장

금년 처음으로 북경에서 개막된 Packaging 2006 전시회에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가 주최자인 Reed Huayin Exhibitions사와 단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관을 구성하여 지난 달 18일부터 20일(3일간)까지 북경 소재 전시장인 중국국제전람중심(CIEC)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Reed Huayin Exhibitions와 중국 포장관련 최대단체인 중국포장연합회(CPF)가 처음으로 조직한 전시회로 세계포장업계와 중국포장업계의 큰 관심을 집중시킨 전시회로 매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ProPak China 전시회와 개최성격이 유사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아온 전시회로 성공여부가 매우 주목된 바 있었다.

20개국 포장 선진국 참가

종합적으로 전시회의 규모와 구성면에서는 성공적인 전시회로 평가를 받은 전시회로 이번 개최 규모로는 20개국으로부터 208개 회사(방문객 약 10,000명, 전시면적 18,000㎡)가 참가하여 매우 성공적인 전시회로 평가된다.

이 전시회는 포장기계협회가 중국지역의 시장 개척을 위해 1998년 9월 광조우에서 개최된 China Pack 1998 전시회에 12개사 13명이 한국 포장기계의 중국진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시회를 관람한 이후 1999년부터 상해, 광주, 북경의 포장전시회에 12회에 걸친 한국관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해외전시회 한국관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번 Packaging 2006 전시회에는 외국기업의 참가가 전체의 약 40%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대만, 홍콩 등 포장관련 선진국에서 20개국이 참가했다.

특히 TeTra Pak사와 Sidel사 그리고 Bosch사와 Hitachi사의 규모 있는 참가는 방문객의 눈길을 끌며 외국관을 한 층 더 손색없게 장식하였으며 국가관인 한국관에는 한국뉴매틱(주)를 비롯하여 (주)삼각기계, 을성정공, (주)선진에스엠, (주)스카이소프트젤, (주)가성팩, (주)경연전람, 한국포장기계협회 등 8개 회사가 참가했다.

그 결과 총 81㎡, 9부스 운영으로 총 상담, 1,252건 1000만불 상당의 상담실적을 기록하



▲ Packaging 2006에 참가한 한국관

고 계약 추진 102건 50만불의 성과를 기록할 뿐 아니라 대리점 상담은 총 54건 이었다.

기계협회, 코리아팩2007 홍보

이번 전시회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시 전문업체인 Reed Huayin Exhibitions와 중국의 중국포장연합회(CPF)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초의 전시회로 그 성공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전시규모와 참가사 및 방문인원 수로 보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상해에서 개최예정이며 매년 개최되는 ProPak China 보다 한 달 앞서 6월에 개최 예정이어서 참가사들의 선택에 큰 고민을 주게 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도 ProPak China는 2001년부터 매년 국가관으로 200m² 정도의 규모로 참가해온 전시회인 만큼 같은 장소에서 한달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시회 이어서 선택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포장기계협회의 홍보부스를 통하여 내년 4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KOREA PACK 2007의 안내 책자를 중국어로 인쇄하여 홍보함으로써 중국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 중 주최사인 Reed Huayin Exhibitions의 Lisa Chen씨는 한국관 참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우리협회 최상식 회장을 개막식 행사에 초대하였으며 내년도 4월 개최 예정인 KOREA PACK 2007 전시회에는 한국을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다.

Packging 2006 전시회는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로 2007년도에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상해에서 상해신국제박람중심(SNIEC)에서 개최된다. ☐